

시화공단, 도장공장 가스 폭발

1명 사망에 2명 부상 ... 건물외벽 붕괴로 차량 10여대 파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의 도색공장 3층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7월15일 1시13분께 원인모를 가스폭발로 작업자 심모(57)씨가 숨지고, 몽골인 B(26)씨와 파키스탄인 L(33)씨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폭발의 여파로 옆 공장에 있던 이모(54)씨가 유리파편에 맞아 다쳤으며,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여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당시 심씨 등은 공장에 연결된 도시가스를 이용해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6>